

# 여야 집안싸움 가열 격변 예고...개각 폭·4월 보선 관심

## 올미년 새해 정국기상도

2015년 올미년이 밝았다. 하지만, 정국 기상도는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개각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고삐를 더욱 잡아당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을 놓고도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개헌특위 구성과 선거구 확정도 정치권의 이슈로 꼽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

## 與 친-비박 갈등·野 당권 싸움

### 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충돌

### 개헌특위·선거구 확정도 이슈

대화와 시도당 위원장 선출, 4~30 서구를 보궐선거 등을 놓고 요동칠 전망이다.

▷개각=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집권 3년차라는 점에서 새로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의 개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2월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명품 회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개각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오는 6월쯤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큰 폭의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내분=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으로 나뉜 새누리당의 갈등도 주목된다. 여기에 친이(친 이명박) 진영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친박 진영이 연말 회동 등을 통해 집단 실력 행사에 나선데 맞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박 진영이 어떠한 대응에 나설 것인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으로 공동운명체라는 점에서 정면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박과 비박이 적절할 지점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다음 달 8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의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전대에서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새로운 지도부가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을 딛고 국민으로부터 수권정당의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단시일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갈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평가다. 전대에 앞서 1월 중에 실시되

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도 관심사다.

▷4월 보궐선거=4월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 관악 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 을 등 3곳에 불과하지만 여론의 풍향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4월 임시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자원외교 국조 등 굵직한 정치 사안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이뤄질 수 있다.

여든 아든 어느 한쪽이 완패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구 확정=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관심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달 30일 국회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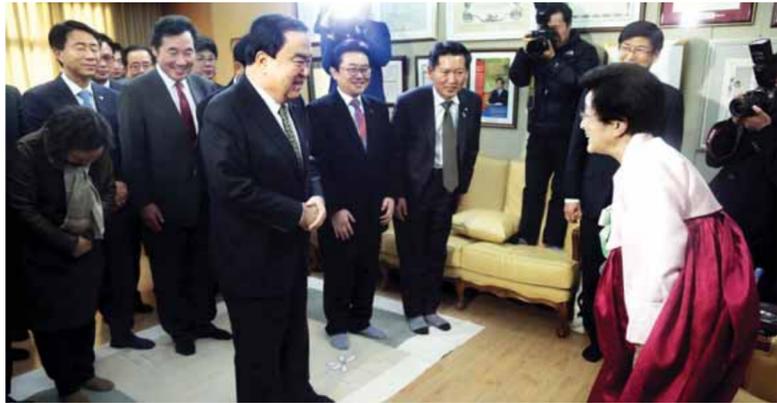
선거구 조정을 뛰어넘어 총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반이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광주 동구와 흥·보성 등이 인구 하한선에 걸려있다. 광주 동구의 경우, 광주시와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간 경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당직자들이 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새정치 문화상 비대위원장과 당직자들이 1일 이희호 여사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29보선 예비후보

### 지난 30일부터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30일부터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월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4월7~11일 거소투표신고를 받고, 4월 9~10일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으며 4월 24~25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4월 국회의원 보선은 광주 서구을과 서울 관악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모두 3곳에서 치러진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의 의원이 상실된 3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 보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제시일 전날인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 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 등 임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애개 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한 종류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지원·문재인 새해 첫날 무등산서 신경전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선거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박지원·문재인(기호 순) 의원이 새해 첫날인 1일 잇따라 '뒤통'인 광주 무등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지지자와 등산객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상대 후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지지자 500여명과 함께 무등산 문빈정사 앞 등산로를 찾아 "무등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새해 민주발전과 서민복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기원하기 위해 무등산을 찾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며 "새정치연합도 클린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당권·대권 분리론을 강조했다.

### "당권·대권 분리해야 산다" "월성 부른 자식 밀어달라"

그는 이어 "두 번의 원내대표와 두 번의 비대위원장을 거치며 정부와 야당에 비수도 날렸지만 협상도 끝어낸 제가 강한 야당과 통합대표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의원을 겨냥해 "혹자는 당권도 갖고 대통령 후보도 해야겠다는 분도 계신다"라며 "이것은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실패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너 무 한가한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당명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혁신해 새로운 민주당으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의 이날 같은 장소에서 지지자의 환대속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제가 광주·전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싶다"며 새해 첫날 일점으로 무등산을 등반하는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은 "집안이 어려워지면 월성부른 자식을 밀어줘 집안의 장래를 맡긴다. 제가 민주당 집안의 월성부른 자식"이라며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전남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의 종갓집이고, 광주·전남시민은 종갓집 어른들"이라며 "종갓집에서 월성부른 자식 밀어줘 민주당을 되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의 '한가한 말씀'이란 지적에 대해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안이한 상황이 아니다"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 희망이 없어 우선은 당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데 모든 힘을 모을 때"라고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현충원 찾은 김무성, DJ 묘역도 참배 문화상 "박정희 묘 참배 아직 용기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배한 직후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새해 첫 아침을 시작했다.

특히 현충탑만 참배해 온 이전 지도부와 달리 김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찾았다.

김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인데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제는 굴곡진 역사를 다 보듬고 혁신을 선도해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유리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

들과 만나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며 "난 아직 그런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직전에 국립현충원을 찾았으나 관행대로 김 전 대통령의 묘역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는 가지 않은 것을 두고 나온 언급이다.

문 위원장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은 참배하지 않는 데 대해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김 전 대통령 묘역만 들고 4·19 묘역을 들르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 다 내려놓고 나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한번 가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최고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